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음 7월 1일) 제18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공모 선정

### 도, 국비 7500만원 확보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키로

전북도는 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에서 공모한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7천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지원 사업'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사민정이 의지를 갖고 협력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도록 자치단체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신청했다.

공모에 선정되어 컨설팅 지원을 받음에 따라 노사민정 네트워크를 구성,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 문화 구축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용노동 현안 해결,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등으로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산업여건은 국내 상용차 제조

사가 2개 입주되어 있다.

국내 증대형 상용차의 93%가 전북 지역에서 생산되고 국내 최초 상용차 주행시험장이 구축되어 기존에 상용차 관련 인프라 구축이 조성되어 있다.

이울러 특장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김제 백구 지역에 특장차 집적화 단지를 구축하여 기존 인프라를 중심으로 상용차 특화 클러스터 거점을 구축하여 생산 진전 기지로 성장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은 국내 상용차 제조사 입주(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타타대우), 자동차융합기술원 연구기관, 국내 최초 상용차 주행시험장 구축 등이다.

상용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완성차 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모선정 결과 전북도는 고용노동부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과 협력하여 전문가, 컨설턴트로 구성된 총

괄지원팀을 통해 산업구조,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 고용 노동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상생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한다.

조사 결과 의제를 발굴 노사민정 주체별 역할 제시와 협의 과정을 지원, 전라북도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전북도 일자리 모델로 확정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로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고용부 공모에 도가 응모한 추진계획과 의제가 선정 되었는데, 이는 공모사업에 도와 전라북도노사민정사무국(수행기관 한국노총 전북본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노사상생형 전북도 일자리 모델을 기반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장은 일자리 창출로 생생하는 전북 구현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중심 경제 성장 토대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오늘 을지연습 첫 날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7 을지연습과 관련, 실국장들과 간부보 고회가 열렸다.

## 김제 산란계 농가에 방사형 농장 살충제 검출

### 죽산면 농가 1곳에... 시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계란은 이미 식단 올랐을 가능성 커"

김제시가 "지난 15일부터 관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에서 생산된 계란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차 검사에서 누락된 살충제 8개 성분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일 죽산면 농가 1곳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로페녹수론 0.008mg/kg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살충제가 검출된 해당농장은 산란계 700수, 병아리 1,500수 정도로 자연방

사를 해서 키우는 농장으로 하루에 달걀 생산량이 200~300개 정도로 도·소매 유통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택배로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시는 해당농가에서 보관중인 240개를 전량 폐기처리하고 출하금지 조치했으며 8월중 유통한 달걀 4,245개 중 1,701개를 회수 및 폐기 처리했다. 현재 회수되지 않은 나머지 달걀은 이미 식단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계 김제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해 김제시 관내 생산 계란에 대해 불신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유통된 계란에 대해서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농장에 대해 앞으로 2주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출하를 허용해 조기에 이번 사태를 수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새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 문 대통령 진보성향 지명... 사법개혁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58·사진)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에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과 신뢰의 책임

자"라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의 김 후보자는 부산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춘천지법으로 발령난지 1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로 발탁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법관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쏘 올린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뉴시스

## 익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외국계 회사 인수 추진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를 외국계 투자회사가 인수를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A사를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캐피탈의 자회사인 '넵클린 홀딩스'가 인수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실사 등에 나서고 있다.

맥쿼리 측은 지난 6월 양해각서 체결 후 음식물처리 사업장을 방문해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6월말에는 익산시 관계자들을 만나 제반 계약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맥쿼리는 기존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등 초기투자 40억원과 장기투자 92억원 등 총 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투자는 동산동·금강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인 악취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맥쿼리의 A사 인수가 동산

동·금강동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기업 간의 매수·매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에서 과감한 투자가 나선다면 악취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6면 - 한국형 싸돼지 2마리 선발

부안군 (扶來滿福)-부안에 오시면 복을 받습니다.

전세계 청소년들의 꿈의 한마당.  
2023 세계잼버리.  
25th Jamboree Scout Mundial Candidate  
25th World Scout Jamboree Candidate

오복을 누리는 축복의 땅 부안 새만금에서 개최!  
하나된 부안군민이 일군 아름다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내유사 전나무 숲, 적벽강, 동도반경이 펼쳐진 부안, 새만금